



남천동 성당

설립 일. 1983. 7. 13.
주보성인. 예수 성심

2024년 11월 3일
연중 제31주일

제1독서
신명 6,2-6

제2독서
히브 7,23-28

복음
마르 12,28ㄱ-34



들빛바로가기
www.wj catholic.or.kr

화답송

-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영성체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노력상에 만족하지 않는 삶



이은빈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 학성동 본당 보좌

+ 찬미예수님

어린 시절 한 학년이 끝날 무렵, 저는 학교에서 자주 상장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장은 학업 성적이 뛰어난 친구들이 받는 우수상도, 출석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친구들이 받는 개근상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은 성적도, 출석도, 교우 관계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뛰어나지도 않으니 더 노력하고 분발하라는 의미의 상인 노력상 이었습니다. 노력상도 엄연히 상이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곤 했지만 딱 거기까지일 뿐 항상 마음 한구석에 씁쓸함과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한 율법 학자에게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아직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임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율법 학자는 사랑의 계명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삶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받은 칭찬은 어쩌면 더 노력하고 분발하라는 의미의 '노력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신앙인들 역시 노력상에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영원히 켜지 않을 생명의 월계관을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

우들이 그 목표를 향해 매일 미사에 참석하고, 묵주기도를 바치며, 신심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등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첫째가는 계명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작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도, 목숨도, 정신도, 힘도 온통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이미 바쳤으니 괜찮다고 핑계 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 나라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고 멀어질 수밖에요.

전례력으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해도 어김없이 노력상으로만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월계관을 받아 참 행복을 누릴 단계로 넘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노력함으로써, 하느님 나라에서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당을 소개합니다



▲ 남천동 성당 기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골로3,2)



남천동 성당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 제천의 구시가지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자리 잡은 소박한 성당이 있다. 남천동 성당은 제천의 모 본당으로서 제천의 전주교회 역사와 함께해온 유서 깊은 성당이다. 제천 지역은 1904년 설립된 용소막 성당의 공소들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1939년 제천 공소를 설립하고 1940년 제천 공소에서 제천 성당으로 승격된 이래 84년여의 역사 동안 고장에 천주교 정신이 뿌리내리도록 힘써 왔다.

남천동 성당은 1대 박일규(안드레아) 신부님부터 23대 홍봉철(라파엘) 신부님까지 23대의 신부님이 봉직하시는 동안 남천동 성당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1957년 단양 성당의 분가를 시작으로 의림동, 서부동 성당, 신백동 성당, 덕산 성당 등 총 5개 성당이 분가하여 설립되는 동안 남천동 성당 교우들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역대 10개의 공소를 세우고 관리하며 신앙의 씨앗을 길러왔으며, 1958년 구세주의 모후Pr의 설립을 시작으로 전성기에는 30여 개의 팀에 단원이 320명에 이르렀었으나 현재는 6개의 팀이 성모님의 군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1970년 성모회를 시작으로 11개의 제 단체들이 본당에서 활동하며 신심을 키워 나가고 있다.

우리 본당은 본당의 설정 기념일을 1983년 7월 13일부터 25년간 출산 축제를 축하하였으며, 남천동 성당은 본당 차원에서 제천 전 지역의 천주교 신자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기억하는 추모 공원을 195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매년 추석마다 제초를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위령성월에 위령미사를 봉헌한다. 이 추모 공원은 제천지구 성당들의 유대 상징이자 고인들에게는 아늑한 휴식의 장소, 교우들에게는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장소이다.

우리 본당은 제천 지역의 사회 복지를 위해 힘써 왔다. 1964년 예수 성심 신협(현 제천 신협)을 설립했다. 제천 신협은 1972년 당시 재무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제천 시민들에게 있어 든든한 향토 은행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1949년 고아원인 보혜원을 인수하여 천혜원으로 개명하고 20년간 운영하였다. 1965년부터 69년까지 노동자 급식소를 운영하였다. 1970년부터는 성모유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1978년 제천 지역 2개 본당이 합심하여 제천 가톨릭 회관을 세웠다. 제천 가톨릭 회관은 40여 년의 세월 동안 제천 지역의 사회복지에 공헌해 왔다. 1988년 어상천, 금성 지역에 수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등 남천동 본당은 제천 지역 가톨릭의 전

통과 역사를 유지하며, 본당 차원에서 제천 지역에서 선한 모범을 보이려 노력해 왔다.

우리 성당은 기도와 신심 활동에도 열중이었다. 1961년 당시 배론공소 관할 하에 있던 가경자 최양업 신부 묘소에서 선종 100주기 기념 기도회를 가졌다. 이전에 우리 본당은 묘비 없이 봉분만 있었던 최양업 신부님 묘소의 사정을 알고 1945년에 묘소 묘비를 건립한 바 있다. 이렇게 우리 본당은 최양업 신부 영성에 도움을 받아 영성을 키웠다. 1968년 제천 시내를 거치는 성체 거동 행렬을 본당에서 주최하였으며, 그 기억을 이어 2023년 본당에서 제천 시내 일부를 통과하여 본당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성체 거동을 본당 신부님 이하 교우들이 합심하여 시행하였다. 성체 신심을 더 깊이 느끼는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우리 본당의 전통을 잇고자 하는 본당 교우가 합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남천동 성당은 오랜 신심의 역사와 전통의 유산 위에서 새로이 신앙을 가꾸나가기 위해서 경주하고 있다. 지방 소멸 위기를 맞아서 우리 본당은 선교에 힘쓰며 교우 피정, 묵주기도와 성체조배를 통해 본당에 은총이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다. 더욱이 매 미사 중 '본당 쇄신을 위한 기도'를 전 교우가 봉헌하고 있다. 그 기도는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본당, 성가 소리가 아름다운 본당으로 우리 본당을 이끌고 있다. 전 교우가 합심하여 은총 가득한 자비의 해를 보내고 기도의 해를 준비하고 있으며, 본당 사목 목표에 충실하게 '기도, 말, 행동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신부님 이하 전 교우가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오랜 신심의 영향으로 우리 본당에서는 네 분의 신부님과 세 분의 수녀님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수원 신학교 학부 2학년의 신학생 한 명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남천동 성당의 역사에 기도의 은총을 더했던 이 한 해가 지나가는 찰찰한 가을인 요즘, 원주교구 전 교우가정에 건강과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아멘!



▲ 본당에서 발간한 서적



▲ 성모동굴

원주교구 선종사제

※ 위경성월을 맞아 교구 선종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이 바드리시오
신부

서품일 :
1938.12.21.
선종일 :
1969.6.27.



도 리차드
신부

서품일 :
1945.12.21.
선종일 :
1973.5.10.



최창규 신부
바르톨로메오

서품일 :
1954.5.17.
선종일 :
1976.5.23.



선종완 신부
라우렌시오

서품일 :
1942.2.14.
선종일 :
1976.7.11.



양기섭 신부
베드로

서품일 :
1930.10.26.
선종일 :
1982.4.3.



지학순 주교
다니엘

서품일: 1952.12.15.
성성일: 1965.6.29.
선종일: 1993.3.12.



양대석 신부
알로이시오

서품일 :
1952.12.20.
선종일 :
1994.3.2.



이병돈 신부
요한보스코

서품일 :
1978.5.18.
선종일 :
1999.1.1.



이영섭 신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서품일 :
1952.5.2.
선종일 :
2002.7.1.



조응환 신부
타대오

서품일 :
1944.10.22.
선종일 :
2002.12.12.



김종태 신부
안드레아

서품일 :
1963.12.21.
선종일 :
2008.5.13.



노세현 신부
마티아

서품일 :
1966.12.15.
선종일 :
2008.8.25.



안승길 신부
로베르토

서품일 :
1971.9.16.
선종일 :
2013.12.24.



조규남 신부
구니베르토

서품일 :
1976.3.25.
선종일 :
2014.2.18.



신현봉 신부
안토니오

서품일 :
1961.3.18.
선종일 :
2022.1.3.



이학근 신부
베네딕토

서품일 :
1965.12.16.
선종일 :
2022.3.28.



이흥근 신부
마르코

서품일 :
1969.12.17.
선종일 :
2022.7.16.



배달하 신부
필립보

서품일 :
1991.1.16.
선종일 :
2023.9.6.

“저 좀 살려주세요”



정인준 파트리치오 신부 / 원로사목

한 본당에서 사목 소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도로와 성당 사이에 있는 집 뒷담으로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사실이 자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목회의에서 그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집이 성당 부지에 있지만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뿐더러 그 집 외에도 세 집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턱도 없겠지만 교구청에 청해서 돈을 빌려서라도 그 집들을 사자고 사도 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다행히 선임 주임 신부님께서 남겨 놓은 돈이 있었기에 여유가 있는 듯해서 시세 가격보다 좀 더 주어야 살 수 있다고 사도 임원들을 꼬드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이 주교님 귀까지 들어갔는지 어느 날 주교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코홀리개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낸 돈을 신부가 뭘데 마음대로 써?’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길고 긴 훈시의 말씀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솔직히 엄청 혼난 것이지요.

그러고는 일 년이 다 되도록 해결하는 데에는 진전은 없었습니다. 집 주인들과 사도임원들 간에 서로 큰 소리가 오고 간다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도임원들이 사제관에 몰려와서 그들 결정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집들을 사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도저히 진행을 할 수 없으니 신부님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집 사는 계획을 취소하든가 아니면 사도임원들을 새로 뽑든가”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 계획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동안 수고들 하셨으니 저녁이나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식사 중에 술을 마시다 보니 ‘주당 본당’이라는 명예답게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술 곧드레가 되었습니다.

사도임원들과 헤어지고 사제관으로 걸어들어오다가 웬지 서글픈 마음이 들어 성당에 들어가서 감실 앞에 앉아 주저리주저리 행한 마음과 함께 푸념을 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나 봅니다. 새벽 3시 경이 되었나요? 으스스해서 깨어나 사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지 이 삼일 되었을까요? 성당에서 가장 가까운 집 아주머니가 사제관을 찾아왔습니다. 그 부인 말이 사도임원들과 함께 남편이 보상가격 때문에 대판 싸우다가 ‘이제 끝냅시다.’라며 일어났는데 자기 남편이 그날 술을 마시고 화감에 두 배나 되는 높은 가격을 제안했기 때문에 사도임원들이 화가 나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어디서 ‘네가 성당 앞 길을 막고 있구나’하는 천둥 치는 소리에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밤에도 똑같이 그 천둥 치는 소리 때문에 깨어났는데 컴컴한 데에서 엄청 무섭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부인은 두려움과 함께 사제관을 찾아와 “저 좀 살려주세요”라며 애원하는 것입니다. 사도임원들과 술을 엄청 마신 덕분인지 그들은 이상할 정도로 순순히 본당 신부 의견을 따라주었고 주교님께 이르지도 않았습다. 기적이 따로 없습니다. 사도임원들과 상의해서 보상가보다 거의 두 배로 이사 비용까지 얹어서 집 4 채를 다 살 수가 있었고 교우들의 큰 소원이었던 주차장을 만들고 낡아 빠진 담을 헐고 새로 쌓으며 멋지게 새 단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 년을 끌던 것이 한순간에 마무리된 것입니다.

“당신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고 당신을 신뢰하여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시편 22,6)

교구장 동정



11월 3일(주일) 사목방문 및 견진성사(용소막 성당)
8일(금) 사회복지위원회 3차 정기회의
10일(주일) 사목방문 및 견진성사(봉산동 성당)

축하드립니다

수요일 11월 5일(화) 장석운 신부



2024년 교황님 기도 지향

11월 / 자녀를 잃은 모든 이
아들딸을 잃고 슬퍼하는 모든 부모가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평화와 위로를 얻도록
기도합니다.

2024 배론성지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피정 일정 안내

- 신청형 피정 - 신청형 피정은 모두 선착순입니다.
- ▶ 피정비 2박3일 : 16만원(후원회원 8만원)
- ▶ 피정 신청 및 문의 043-651-4563
- ▶ 매일 11시 순례자 미사 (연중무휴)
- ▶ 자원봉사 후원회 모집 T.043-651-4564 M.010-7613-4564

2박 3일 피정 일시 및 강사진

- ▷ 11월15일(금)~17일(주일) : 허규 베네딕토 신부(서울대교구)
- ▷ 12월20일(금)~22일(주일) : 이성호 리노 주교(수원교구)

✧ 천주교 원주교구 순례길 「님의 길」 가을 순례 프로그램

✓ 짧은 순례 구간간의 반만 걸어요. 버스지원, 기념품 제공, 단체신청 가능

날짜	길 이름	이번에 순례하는 구간(거리, 시간)
11	9 큰 침례길(풍수원성당 ~ 창촌공소)	풍수원 성당 ~ 매나미(5Km, 3:00)
	정규하 신부길(풍수원성당 ~ 영산성당)	금대공소 ~ 곤익골 공소(7Km, 3:00)
	16 네 공소길(창촌공소 ~ 옛구재공소)	오크벨리 ~ 옛 구재 공소(4Km, 1:30)
	성사길(용소막성당 ~ 배론성지)	숲속의원 ~ 배론성지 (4.5Km, 2:00)
30	서지고개길(서지마을 ~ 귀래공소)	서지마을 ~ 사기막(10.3Km, 2:30)
12	3 최 비르지타 순교길(대안리공소 ~ 원동성당)	대안리공소 ~ 무실동 성당(10Km, 2:30)

✓ 순례 피정 순례성을 만나는 무료피정
(버스지원, 기념품 제공, 단체신청 가능)

일시 : 11월 20일(수) 16시 ~ 21일(목) 13시
장소 : 횡성 성 도미니코 수녀원
주제 : 우리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날까?
강사 : 이우갑 베드로 신부(원주교구 순례담당)

✓ 참가 신청

- ▶ 전화(문자) 신청 : 010-5719-3217
서지마을 033-745-3217
카톡 : 번호 저장 후 서지마을 카톡 등록 후 신청
- ▶ 홈페이지 신청
<https://sunraegil.seoji.net/board/pilgrimage2>



순례길 봉사단 미사

일시 : 11월 13일(수) 11시
장소 : 원주교구 성지 서지마을
문의 : 010-5719-3217

교구 알림

성서사십주간

비대면 : 11월 5일(화) 가톨릭센터, 20시
대면 : 11월 5일(화) 태장동 성당, 10시
6일(수) 서부동 성당, 19시30분
7일(목) 횡성 성당, 20시
문의 : 복음화사목국 성서부 033-765-4226

교구 카나혼인강좌

때 : 11월 9일(토) 10시 / 곳 : 가톨릭센터 2층 강의실
접수 : 홈페이지 신청(당일접수 불가)
교육비 : 1쌍 40,000원
문의 : 가정사목국 033-765-4225

하반기 청소년 사목자 연수

때 : 11월 12일(화)~14일(목)

곳 : 강화 일만위순교자 피정의집
주제 :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골로2:7)
대상 : 청소년 사목 중인 사제, 수도자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미사준비, 개인컵(텀블러)
참가비 : 1인 150,000원
신청 : 11월 3일(일)까지 F. 033-765-4223
문의 : 청소년사목국 033-765-4228

청년성서 하반기 재교육 연수

때 : 11월 17일(주일) 11시~16시(10시30분 접수)
곳 : 가톨릭센터 200호
대상 : 청년성서 하늘나래 가족, 관심있는 청년
준비물 : 미사 준비, 텀블러, 필기도구
참가비 : 1인 10,000원
신청 : 11월 10일(주일)까지 F. 033-765-4223
문의 : 청년·대학사목 033-766-4228

수험생 부모 피정

때 : 11월 14일(목) 9시30분~15시30분
곳 : 무실동 성당
준비물 : 미사준비, 묵주
참가비 : 10,000원
농협 317-0009-5405-41 천주교원주교구
신청 : 11월 8일(금)까지 F.033-765-4223
문의 : 가정사목국 033-765-4225

미사·피정·연수

청년 체육대회

때 : 11월 3일(주일) 11시~19시
곳 : 천사들의 집
문의 : 청년·대학사목 033-766-4228

법무사 전두표 사무소 전두표(바오로), 여성자(로사) 등기, 민사, 호적, 법률상담 T.033-344-3888, 2888 (황성군청 앞)	파리바게뜨 무실세영점 단팻빵, 크림빵, 게익 등 베이커리 일체. 단체주문 환영 창금자(테레사) T.033-745-8230, 010-5225-9861	라파엘여행사 성지순례안내 1/6멕시코 과달루페, 칸쿤10월715 1/17,2/14,3/14사칠리아올타10월485 2/24, 3/3 터키, 그리스11월초특가385 1/15, 3/09 포르투갈 일주9월 299 3/26 대한항공 이태리일주9월 419 대표 : 유재구 요한 02-778-8565	최경훈 내과(심장클리닉) 최경훈(마르코), 한숙자(엘레나) 고혈압 · 심혈관 질환 전문 대학병원급 심초음파 전문 장비 보유 24시간, 72시간 심전도 검사 24시간 열동열압, 동맥경화검사 T.033-742-7400 원주세브란스병원 앞	바른 한 의 원 바른치료 · 빠른치료 유경철(요셉) 신창숙(루시아) T.043-642-8585 제천 중앙시장 1층 다동
임마누엘 가톨릭결혼정보 이 수산나 50년 전통 최고의 성혼를 신앙을 바탕으로 최고의 만남을 주선 부모님 상담 환영/늦은 초혼·재혼 전문 T.02-757-3343 명동성당 앞 태웅빌딩808호	3H 지압침대 원주무실센터 신순남(세라피나), 강일성(요셉) 목, 척추교정 및 허리디스크에 좋은 지압침대 T.033-735-3737, 010-8994-3775	연세프라임안과 이석준(미카엘), 박명호 각종 안과 수술 전문 T.033-731-2753 연세안과 현재현, 송정순(마리안나) T.033-731-0505	상지식자재 할인마트 이희(마티아), 김향수(엘리사벳) 최저가판매 및 납품 일반고객 환영 T.033-733-5400(우산동)	

레지아 월례회의

때 : 11월 3일(주일) 13시 / 곳 : 원동 주교좌성당

가톨릭 농민회 노동한마당

때 : 11월 3일(주일) 9시 / 곳 : 명동성당

연령회 연합회 염습교육

때 : 11월 4일(월) 19시 / 곳 : 명륜동 성당

교구1일피정회 미사 및 월례회의

때 : 11월 5일(화) 14시 / 곳 : 교구청 경당, 203호

성심회 미사

때, 곳 : 11월 5일(화) 18시30분 부터, 교구청 경당
문의 : 교정·경찰사목 033-766-1268

가을학기 성음악 캠프

때 : 11월 8일(금)~10일(주일)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들빛누리후원회, 미카엘봉사자회, 멜라니아회 월례미사

때 : 11월 9일(토) 10시30분 /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교정·경찰사목 033-766-1268

사도행전 연수

때 : 11월 9일(토)~10일(주일)
곳 : 가톨릭센터 마리아홀
문의 : 복음화사목국 033-765-4226

파티마 세계사도적 신심미사

때 : 11월 9일(토) 9시부터
곳 : 단구동성당(미사 김현수 바오로 신부)
문의 : 회장 010-4342-3535

이주민 미사 및 한글공부

때 : 11월 10일(주일) 12시
곳 : 가톨릭센터 마리아홀
문의 : 보건·이주민사목 033-766-1267

1박2일 단기 성령묵상회

때 : 11월 12일(화) 13시~13일(수) 16시까지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강사 : 김현우 바오로 신부(인천교구)
회비 : 12만원(신협 131-002-194303 천주교원주교구)
문의 : 010-8919-9731, 010-2312-9654

여성연합회 제50차 정기총회

때 : 11월 20일(수) 10시~16시
곳 : 가톨릭센터 마리아홀
대상 : 본당 성모회 및 총구역 임원
내용 : 특강·2024년 사업결산 및 2025년 사업예산
신청 : 11월 8일(금)까지 / 회비 : 1인 10,000원
문의 : 010-7202-2474, 010-5376-5924

원주 ME 제153차 주말

때 : 11월 22일(금) 19시~24일(주일) 17시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인원 : 선착순 20부부(혼인한지 3년 이상, 성직자, 수도자)
예약금 : 10,000원
문의 : 원주ME 주말분과
010-4410-4217, 010-8591-4217

연령회연합회 하반기 일일교육

때 : 11월 23일(토) 9시30분~13시
곳 : 가톨릭센터 마리아홀
대상 : 각 본당 연령회장 및 임원
강의 : 이형호 베드로 신부(복음화사목국장)
신청 : 11월 15일(금)까지 F.033-765-4223
신청서 작성 후 복음화사목국
문의 : 복음화사목국 033-765-4224
회장 010-9542-9000

춘천교구 가톨릭회관, 위령성월 피정

때 : 11월 15일(금)~17일(주일) / 곳 : 가톨릭회관
강사 : 배광하 치리아코 신부
신청 : 11월 4일(주일)까지(선착순, 입금기준)
cccacenter@daum.net
참가비 : 2인 1실 17만원, 1인 1실 20만원
신협 131-019-838389 춘천가톨릭회관
문의 : 010-8884-5340

채용·모집·기타

재속 프란치스코회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에 관심있는 신자를 위한 모집과 안내
문의 : 삼척 형제회 010-2534-7194
제천 형제회 010-2276-6337
원주 형제회 010-4948-4943

항심기도 모임 안내

때 : 매주 목요일 14시~16시 / 곳 : 봉산동성당
대상 : 항심기도 교육을 받은 분
누구든지 처음 오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문의 : 원주교구 항심기도회 010-7278-9894

한티가는길(도보순례)

때 : 12월 18일(수)~20일(금)
곳 :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강사 : 류 에프렘 수사
참가비 : 2박3일/25만원
문의 : 010-6791-0071

일본 가고시마교구 주관 성지순례(3박4일)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도쿄, 오사카
문의 : 010-3645-9028(담당 신부)

교구설정 60주년 기념 청소년 해외 봉사

일시 : 2025년 2월 5일(수)~11일(화) 6박7일
장소 : 인도네시아 메단
대상 : 해외봉사활동 참여에 결격 사유가 없는
(건강상의 이유 등) 예비 고1~예비 고3
(2025년 기준) 청소년 20명
주제 : “희망의 순례자들”
참가비 : 1인 1,000,000원(변동 가능)
농협 317-0026-5476-11 천주교원주교구
학생 이름으로 입금 : 예) 봉사최양업, 봉사김대건
신청 : 11월 17일(주일)까지 우편 또는
E-mail : wjch-02@hanmail.net 접수
문의 : 청소년사목국 033-765-4228
※ 자세한 사항은 교구홈페이지
(www.wj catholic.or.kr-교구소식)참조.

제19회 가톨릭 원주교구 사진가회 정기전시회

기간 : 11월 23일(토) 14시~27일(수) 17시
곳 : 가톨릭센터 지하전시실
오픈미사 : 11월 23일(토) 14시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 집전)
※님의 길 순례사진 병행 전시
회원모집 및 문의 : 010-8790-9917

『원주교구 60년사』편찬 협조 요청

교구 설정 60주년(2025. 3. 22.)을 맞이하여
『원주교구 60년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당, 산하 기관·단체에서는 요청드린 기록 자료를 보완하셔서 11월 30일까지 편찬위원회에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서주간 말씀잔치



주제 : 지혜와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말씀
“지혜의 시작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진실한 소망이다.”(지혜 6,17)

강사 : 이형호 베드로 신부, 황미숙 마리아갈다 수녀

일시/장소 : 11월 26일(화) 10시~16시30분 / 구곡 성당(미사: 15시30분 - 조규만 주교 주례)
11월 28일(목) 10시~16시30분 / 성내동 성당(미사: 15시30분 - 조규만 주교 주례)

티켓구입 : 복음화 사목국 033-765-4223 / 청서부 033-765-4226 (티켓 1장 10,000원)
농협 301-0325-3123-21 (재)천주교원주교구유지재단

* 당일 티켓지참 : 입장, 강의록 교환, 식권 교환(점심), 미사 때 상품 추첨.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26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460만원 3/3 튀르키예, 그리스 495만원 3/3 발칸반도(메추고레) 465만원 3/11 동부유럽 4개국 395만원 T.02-2281-9070 / www.cttour.org	연세민내과 의원 염동호(가브리엘), 민미심(엘리사벳) 위 대장내시경, 간·유방·갑상선 초음파 고혈압·당뇨·만성질환·만성피로 증후군 8시 진료시작(국가예방접종 위탁기관) T.033-733-7582(중앙로 86)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우명숙(글라라), 김길영(마르티노) T.033-647-6063(강릉 임당동) 033-531-7887(동해 묵호동)	한일중기 볼보건설기계 송철희(대건안드레아), 김명국(미리암) 볼보 중장비 정비/부품 T.043-645-0308, 010-8790-4800 충북 제천시 왕암동 998	(주)알렉스분석시험소 김민기(막시밀리안노콜레), 황병훈(유스토) 국제공인시험기관 분야 : 폐기물 (PCBs), 수질, 생태독성, 실내공기질, 소음진동, 건축자재방출시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청정로 80-1 T.033-744-2817 / www.alexlab.co.kr
세신종합주방 할인마트 김중운(도마) 업소용 주방기구설비 제작전문 가정용 그릇, 관공서, 닥트 T.033-734-6060, 010-8793-5174 원주시 천사로 258(학성동)	서울미소플란트치과 국태성(안토니오), 강로사(로사) 서울대 치과병원 전문의 진료 임플란트, 충치치료, 잇몸치료 T.043-651-2275 제천 용두천로 86(보령약국 건물) 3층	영웅앵글 함정선(말가리다) 조삼천(바오로) 조립식 앵글선반/ 창고 공장 파렛트랙 설치 T.033-742-9493 원주시 평원로 106(학성동 331-3)	(주)강원도로마이트광산 김성배(프란치스코), 정찬아(글라라) 고토비료, 골재, 부순모래, 조경석 T.033-762-5252~5	